2016-1 가천대학교 <독일의이해> 4주: 종교(기독교)+ 종교개혁+<루터>

독일과 기독교

- 1) 게르만 민족의 이동: 독일인의 조상은 원래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북해 그리고 발트 해연안의 북유럽에서 작은 부족 단위로 흩어져 생활. 철기 시대가 시작될 무렵 중부 유럽까지 활동 무대를 넓혔으며, 4세기 경 훈족을 피해 게르만 족이 대규모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로마 멸망의 결정적 요인이 됨.
- 2) AD 98년 로마의 학자 타키투스: 당시 로마의 퇴폐적인 풍속을 경고하기 위하여 쓴 저서 <게르마니아>에 게르만족의 건강한 기풍 소개. 게르만족은

"전투에 능한 게르만족은 성실, 명예, 용맹함, 복수심을 주요 가치로 삼는 민족"

- 3) 인력이 부족한 로마에서 게르만족은 용병으로 고용되었으며, 쇠퇴의 길로 접어든 로마는 점점 더 게르만족(용병=군사력)에게 의지하게 됨.
- 4) AD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: 기독교 승인 -> 로마로 유입된 상당수의 게르만 족들 역시 기독교로 개종
- 5) 실질적인 독일 역사의 시작: 프랑크 왕국(왕권과 교회의 통합을 통한 통치권 확보)
- ① 시작: 프랑크족의 수장 클로드비히(클로비스) 기독교도와 결혼 및 개종, 쉽게 주교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여 다른 게르만족의 족장들을 물리치고 프랑크 왕국 건설 성공(482년)
- ② 전성기: 카알 대제
- 스스로를 로마의 후계자로 자처하며 로마제국의 전통 계승을 필생의 업으로 삼음
- 라틴어와 프랑크어 사용
- 기독교 전파가 곧 제국을 확장해 가는 방식
- 800년: 교황 레오 3세가 황제 대관식을 베풀어 줌(형식적으로 보았을 때 로마제국의 부활을 뜻함)
- ③ 끝 프랑크 왕국의 분열: 카알 대제 사후 ,경건왕' 루드비히를 지나 손자 대에 서(오늘날 프랑스 지역), 중(오늘날 이탈리아 지역), 동(오늘날 독일 지역) 프랑크 왕국으로 분열

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게르만족 전통의 분할상속제

- 6) 동프랑크 왕국: 통치권이 자주 흔들림
- 동쪽 국경지대: 늘 불안
- 주교들이 국왕의 특권(주화 주조권, 세금 징수권, 재판권 등) 행사
- 큰 가문 밑에 옛 부족대공령 난립: 프랑크, 작센, 슈바벤, 튀링엔, 바이에른 등 많은 가 계로 갈라짐

| 페**이지** | 가 | **1**

- 7) 유력 가문으로 떠오른 작센과 신성로마제국
- ① 오토 대제:
- 게르만족의 풍속에 따라 능력있는 인물을 자유롭게 등용
-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봉건체제를 통하여 후계자 분쟁 및 가문 내 분열을 뿌리 뽑음
- 당시 무정부 상태이던 이탈리아 원정(총 2회) 성공으로 결국 962년 교황의 손에서 황 제관을 받고, 신성로마제국 건설
- ②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선출 방식: 선출제(유력 집안끼리 권력 암투가 극심)
- ③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세습의 위험이 없는 초 부족적인 교회 세력을 국가 통치기구로 활용
- ④ 왕과 교회의 권력 분배:
- 왕: 대주교, 주교, 수도원장 등 고위 성직자 서임권, 교회 토지를 영지로 귀속
- 교회: 화폐주조권, 관세징수권, 시장개설권 등 국왕의 특권은 교회에 위임하여 부족공 세력을 견제하도록 함
- 8) 황제와 교황의 끊임없는 충돌
-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: 1075년 교회와 세속정치의 관계를 규정한 <교황령> 발표

교황만이 주교를 서임하고 퇴임시킬 수 있다.

교황만이 황제의 표장(지배의 상징)을 사용한다.

모든 영주는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어야 한다.

교황은 황제를 퇴위시킬 수 있다.

교황의 판결은 누구도 뒤집을 수 없다.

누구도 교황에 대해 사법권을 갖지 못한다.

교황은 나쁜 군주에 대한 충성 서약에서 신하들을 풀어줄 수 있다.

로마 교회는 지금까지 결코 길을 잃은 적이 없고,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.

- 황제 하인리히 4세: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파면
-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: 황제 하인리히 4세 폐위, 교회에서 추방
- 두려워진 세속 제후들이 교황의 편으로 돌아섬
- 하인리히 4세: 카놋사의 굴욕(교황을 찾아가 읍소)
- 하인리히 4세의 반격 성공
- 계속된 갈등
- 1122년 성직자와 세속 군주의 관할과 권리를 규정한 ,보름스 협약'을 통해 타협 ->교 회와 국가가 분리되기 시작
- 9) 중세의 봉건제도와 장원제도:

왕국을 통치하기 위하여 ,봉신'이라 불리는 충신에게 충성의 대가로 영지와 그 영지에 사는 농민 하사(황제가 봉신에게 빌려주는 것), 유럽의 질서는 이 영지, 즉 봉토의 원칙으르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중세의 질서를 ,봉건제'라 함.

- 10) 신성로마제국과 십자군원정
- ① 십자군 원정: 세속권에 대한 교황권의 우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
- 유럽의 제일 큰 적은 이슬람 세력
- 이교도의 압박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지를 되찾자며 1096년부터1291년까지 총 8차례 에 걸쳐 원정
- 1차 십자군 원정은 프랑스 기사들이 주도하였으며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 왕국 건설 성공
- ② 2,3차 원정부터 독일 기사단 참여: 교황과 서임권 투쟁을 치른 독일 황제들은 교회 주

도의 십자군 운동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았으며, 참여했어도 큰 사명감을 가지지 않음.

- 11) 중세 시대 기독교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
- ① 흑사병 창궐(1347-1353, 유럽 인구의 3분의 감소)과 유대인 학살

- 13세기 초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유럽 지역 인구 증가

- 식량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 + 자연재해 = 엄청난 기근

② 유대인 학살

보호, 봉토 수여 충성, 군역

기사

영주의 보호

농노

제후

- 1346년 말 동방으로부터 온 페스트균 유럽 대륙 상륙 -> 1348년 알프스 티롤을 넘어 독일 바이에른 지역 상륙 -> 1349년 12월: 쾰른 지역에 72일 동안 2000명희생, 마인츠 6000명, 뮌스터 11000명, 에어푸르트 12000명, 브레멘 교구 약 7000 희생
- 손발을 자주 씻는 등 청결을 강조하고 전염병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하는 유대 전통으로 인해 흑사병 감염자가 적었던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렸다는 누명을 쓰고 박해를 당한
- 1348년 프랑스 시용에서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이유로 재판, 모진 고문 끝에 피고소인 범행 자백 후 화형 당함. 이후로 수없이 많은 유대인 학대 및 학살 사건 발생
- * 흑사병과 상관없이 당시 유럽에 팽배해 있던 반유대주의
 - 당시 기독교에서 금하던 사채업에 진출
 - 제후 및 기독교단 견제 및 불황으로 일반 시민 대상 고리대업/전당포업자로 활 동하며 일반 민중들의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됨
- ③ 채찍질 고행단 운동
- 11세기 초: 이탈리아 수도사 사회 정신(신성) 강조. 육체 부정
- 13세기 초: 불어 닥친 대난(흑사병 창궐)이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분노와 징벌이라고 판단, 징벌의 완화를 위한 회개의 증명으로 다시금 시작
- ④ 마녀 사냥: 악이 인간의 삶을 잠식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, 이를 경계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마녀(악의 화신)를 색출하여 처단함
- 1275년 최초의 마녀 재판, 1714년 법률로 마녀 재판 금지, 1775년 마지막 마녀 재판
- 중세에 시작했으나, 16-17세기에 전 유럽에서 광기수준으로 성행함.

페이지 | 2

- * 누가 마녀?
 - 중세 늙은 여인들, 민간요법을 행할 수 있는 노파, 거렁뱅이, 부랑자, 산파
 - 근세 명문의 가의 딸들, 공무원, 사제, 수녀, 여자 상인
- * 마녀 재판
 - 마녀의 대한 민간의 믿음이 커지면서 법으로 처벌
 - 재판을 통해 죄를 선고 받고 처형되는 마녀가 늘어나면서 마녀에 대한 믿음 확산
- * 중세보다 16-17세기에 더욱 성행한 이유+독일에서 마녀재판이 가장 많이 일어난 이유
 - 지방 분권체제로 인해 사법제도가 지방분권화 (무분별한 판결난무)
 - 종교 개혁의 후유증 종교 개혁 vs 반종교개혁, 종교를 전면에 걸고 30년간 지리하고 잔인한 전쟁. 천 년을 지탱해온 중세 기독교의 기반 약화
 -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삶의 터전, 무기력감, 허무함
 - 전통적인 봉건제도 및 장원제도 붕괴 새로운 사회, 경제 질서의 등장
 - 사회적인 혼란과 불안감 극대
 - 종교 개혁가들의 악마이론(성서중심주의 신앙 악마가 조명을 받게 됨) -> 높아진 도덕에의 요구 -> 책임전가 ->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 ->-마녀사냥
- 12) 마틴 루터(Martin Luther, 1483-1546)와 종교개혁

근대에 이르러 인간은 인문주의와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성서와 교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이동. 신대륙이 발견되고. 화약이 발명되면서 기사의 시대 가 종말하며, 도시와 상업이 발달하며 신성로마제국의 위상이 점차 유명무실해지게 됨.

① 루터: 동독 작센 지역의 아이스레벤에서 광산업을 하며 자수성가한 아버지(한스 루터) 밑에서 성장, 보통의 자수성가한 사람들처럼 루터의 아버지 역시 매우 검소했으며, 아들 마틴을 매우 엄격하게 교육시켰으며. 그가 법률가가 되기를 바람. 그러나 학교에서 집으 로 돌아가던 어느 비바람 몰아치던 날. 무시무시한 벼락이 내리쳤고 그 순간 벼락 치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루터는 수도사가 되기로 서원함.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 도 불구하고 결국 성직자의 길로 접어든 루터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했으며. 사소한 잘못에도 고해성사하며 우직하게 참회했음. 그가 있던 수도원에서 너무 자주 고해성사를 하러 오는 루터에게 수도원장 슈타우피츠가 이렇게 짜증을 냈다고도 함:

"간통이나 살인 같은 죄다운 죄를 짓고 와야지. 그걸 뭐 죄라고 고백하나?"

- ② 95개조 반박문 작성: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루터가 대학 교회 정 문에 베드로 성당 신축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는 행위에 맞서 반박문 붙임
- ③ 강력한 성서 중심주의: <로마서 3장 28절> "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"를 근거로 신앙의 유일한 원천 페이지 은 전통적인 중개자(교회 내지 성직자) 없이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성서라고 확신

- ④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술로 인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. <독일 민족의 기독교 귀족 에게 고함>(1520). <기독교인의 자유에 관하여>(1520) 등이 급속하게 전파됨
- ⑤ 당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였던 카알 5세는 전통적으로 카톨릭이 강한 에스파냐의 국왕 이기도 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보호할 수 밖에 없었음, 1521년 카알 5세는 보름스 제국 회에를 소집하여 루터에게 주장 철회를 권유하였으나 루터는 한층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되고 결국 추방당함
- ⑥ 성서 번역: 작센 왕국의 선제후 프리드리히의 보호를 받으며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지내며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
 - 통일된 독일어의 기반 마련
 - 정치적으로 늘 분열되어 있었던 독일 민족에게 민족적 결속력을 다지고 통일된 독일에의 희망을 강화시켜 줌
- ⑦ 1530년 이후 전 독일과 북유럽 그리고 폴란드까지 종교개혁 확산: 전직 수녀와 결혼 함으로써 로마 카톨릭 교회와 최종적으로 결별, 새로운 교회 조직
- ⑧ 루터의 직업소명설에 고무된 농민들이 1524년 독일남서부와 슈바벤에서 대규모 농민 전쟁을 일으킴. 그러나 종교개혁이 사회변혁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반대한 루터는 제후 들의 편에 섬. 결국 루터는 민중운동의 적이 됨.

*참고문헌

만프레트 마이 지음(장혜경 옮김): 상식과 교양으로 읽는 유럽의 역사, 웅진, 2008

이동희 지음: 역사를 바꾼 종교개혁가, 지식의숲, 2013

임종대 외 지음: 독일 이야기1. 거름. 2000

차영길 외 지음: G세대를 위한 서양의 역사와 문화, 경상대학교 출판부, 2011